

兩朴 회복... 그리스전 문제없다

(지성·주영)

남아공 월드컵 D-4

'팔꿈치 탈골' 주영·'허리 통증' 지성 정상훈련



“팔꿈치 주변 조직이나 뼈에 큰 이상이 없다. 약간 부어 있지만 이를 정도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각)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에서 회복 훈련을 겸한 축구 경기를 하다 왼쪽 팔꿈치가 빠졌던 박주영(25·AS모나코)이 12

일 그리스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출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재 대한축구협회 미디어담당관은 “박주영 선수가 남아공에 도착한 직후 인근 병원에서 X-레이를 찍었는데 팔꿈치 주변 조직과 뼈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간 부기가 남아 있지만 이를 후면 정상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은 입국할 때 팔꿈치에 보조대를 차고 있었지만 5일 남아공 도착 후 첫 훈련 때는 압박붕대를 감은 채 선수

들과 함께 러닝과 패스 훈련을 했다.
이원재 미디어담당관은 “이들이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며 그리스와 조별리그 개막전 출장 가능성을 전했다.
또 오른쪽 허벅지 안쪽 통증 탓에 3일 스페인과 평가전에 결장했던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통증이 사라져 남아공 첫날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했다.
허정무 감독은 “박지성은 현재 이상이 없다. 약간의 통증 느낌이 있어 부상으로 이어질까 봐 스페인과 경기에 기용하지 않고 그리스와 경기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들 훈련은 즐겁게

지난 5일 오후(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캠프인 루스텐버그에 도착한 태극전사들이 올림피아파크구장에서 첫 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박지성 등 선수들이 손으로 공을 패스하는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본선 중압감, 스트레스 받은 그리스

평가전 잇따른 패배에 불안 불안
선수들 16년만에 밟은 무대 부담

한국 축구 대표팀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첫 상대인 그리스도 월드컵에 대한 상당한 중압감을 노출하고 있다.

6일(이하 한국시각) 월드컵 본선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그리스의 최근 불안한 전력과 더불어 16년 만에 본선을 밟게 된다는 사실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

그리스는 1994년 미국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해 조별리그 3경기에서 10골을 허용하고 1골도 넣지 못한 채 배탈리들

했다. 당시 알케타스 파나굴리아스 그리스 감독이 라커룸에서 풀이 죽은 선수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도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gsxiwo0r5hJY&feature=player-embedded)에 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교적 '영건'인 요르코스 사마라스(셀틱)는 “한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는 게 어렵고 그 때문에 나는 그것을 즐겨야 한다”며 “월드컵에 다시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수비수 바실리오스 토로시디스(올림피

아코스)도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우려되는 면은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오트 레하겔 그리스 감독은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남아공 더반으로 들어오면서 선수들의 이 같은 부담감 표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레하겔 감독은 “월드컵 출전은 누구나 누릴 수 없는 경험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출전에 의미를 두려고 떠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조별리그 1차전에 전력을 쏟아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레하겔 감독도 월드컵 본선이 처음이고 작년 월드컵에

선이 끝난 뒤 국가대항전에서 한 차례도 이겨보지 못한 선수들의 사기가 낮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처지다.

그리스는 올해 들어 3월 4일 세네갈에 0-2로 졌고 지난달 26일에는 본선 출전국 가운데 최약체로 평가되는 북한에 2-2로 달미가 잡혔으며 지난 3일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파라과이에 0-2로 완파 당했다.

그리스 대표팀은 이날 언론에 비공개로 김사카 국제공항을 통해 더반에 들어와 올림파록스에 있는 베버리 힐스 호텔에 여장을 풀었으며 7일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월드컵 소식

한-그리스전, 뉴질랜드 중심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사명을 띠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의 본선 조별리그 첫 경기인 그리스전 중심을 뉴질랜드 출신의 미카엘 헤스터(38) 심판이 맡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6일(이하 한국시각)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 투입될 심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12일 오후 8시30분 포트엘리자베스 벨스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B조 1차전 한국-그리스전 심판에 헤스터 주심을 비롯해 안 헨드릭 헨츠(뉴질랜드) 및 데비타 마카시니(통가) 부심이 배정됐다.

나이지리아 미켈 출전 포기

나이지리아 축구 대표팀 주전 미드필더 존 오비 미켈(23·첼시)이 무릎 부상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AFP통신 등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지난 4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무릎을 다친 미켈은 수술과 재활을 거쳐 지난달 27일 대표팀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경기를 치를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결국 출전을 포기했다.

한국 취재진 잇따라 피습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취재하기 위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간 방송사 취재진이 잇따라 괴한에 습격당했다.

6일 MBC에 따르면 MBC TV 국제사사 프로그램 'W'의 한 프리랜서 PD가 최근 요하네스버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괴한에게 강도를 당했다.

MBC 관계자는 “이 PD가 밤 시간에 공중화장실을 갔다가 강도를 당했다”며 “목이 찢려 잠시 기절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고 전했다.

남아공에 파견된 SBS의 한 관계자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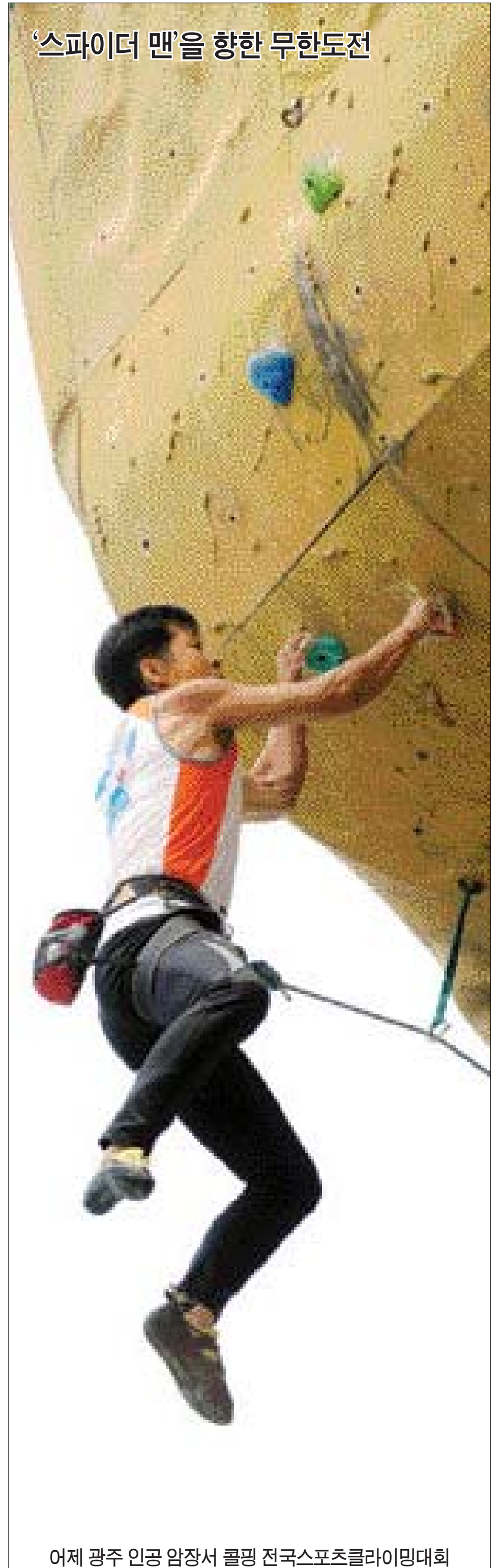
일 국제전화에서 “요하네스버그에 머물고 있는 SBS 교양국 PD 중 한명이 최근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佛의 수모... 중국에 0대1 패

2006년 독일 월드컵 준우승팀으로 세계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프랑스 대표팀이 지난 5일(한국시각) 프랑스 생피에르에서 열린 중국과 평가전에서 후반 23분 덩치우상에게 골을 허용해 0-1로 패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마련한 세 차례의 평가전에서 1승(1무1패) 밖에 거두지 못했다. 튀니지와 1-1로 비겼고 코스타리카에만 2-1로 이겼다.

/연합뉴스



‘스파이더 맨’을 향한 무한도전

어제 광주 인공 암장서 콜핑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국내 암벽등반가들의 축제인 ‘콜핑과 함께 하는 제22회 광주광역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6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경기장에서 열렸다.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는 ‘2010 코리안컵시리즈 2차 대회’를 겸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참가해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한 ‘스파이더 걸’ 김자민(23·고려대), 남자 일반부는 손상원(28·코오롱스포츠)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아웃도어 전문브랜드(주)콜핑이 후원했다. 사진은 남자 장년부 결승전에서 김양수(조선대0B)가 상단부 오버행(Overhang·처마처럼 돌출된 경사 90도 이상의 암벽)을 오르는 모습.

/정후식기자 who@·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